

# 다도명상·예절교육으로 '나'를 가꾼다

무소유실천운동본부, 청소년 문화체험교실 운영

최근 들어 이혼율이 높아지고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나홀로 시간을 갖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할 시기에 이들이 홀로 있는 경우가 많아지면 정서적 유대감 결여로 인한 인격·성격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져 가정이나 학교 및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성찰·인성함양 교육을 실시하는 재가모임이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포교사단 산하단체 무소유실천운동본부(회장 임희웅)가 진행하고 있는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청소년 가꾸기 사업-수메다' 프로그램.

무소유실천운동본부는 안전행정부로부터 운영금을 지원받아 지난 5월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청소년 문화체험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이성학 무소유실천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수메다(Sumedha)는 부처님 전생의 이름으로 지혜와 공덕을 쌓은 수메다처럼 지혜롭고 건강할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프로그램명을 지었다"며 "학교폭력·왕따 문제를 겪거나 다문화 가정 및 저소득가정 등 소외계층 자녀들을 지역 학교 및 관공서에서 추천받아 교육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메다는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수메다' 참여 학생들은 매주 토요일 무소유실천운동본부 교육관에 모여 전문강사와 포교사단 회원들에게 다도와 예절, 전통 문화 등을 익혀나가고 있다.



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문예절교실 △다도명상교실 △사물놀이교실을 개설해 매주 토요일 수업을 운영하며, 동·하절기로 나눠 수련회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참여 학생들은 20여 명 정도로, 이들은 매주 토요일 서울 삼선동 무소유실천운동본부 교육관에 모여 전문강사와 포교사단 회원들에게 다도와 예절, 전통 문화 등을 익혀나가고 있다.

"한문예절교실"은 한문을 배우고 예절 동영상자료를 통해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상호배려의 예절을 익히는 시간이다. "다도명상교실" 시간에 학생들은 명상오디오 시청 후 명상수행을 따라하며 다도 전문 강사에게 다도를 배운다. 모두 자기성찰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효과

가 있는 체험활동이다. 또한 학생들은 '사물놀이교실'에서 북·장구·꽹과리·징 등 사물악기를 연습해 가족과 친구 간 친화력을 키운다.

특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포교사단 회원들 대부분은 퇴직한 전문 인력들로, 단순한 재정적지원의 참여를 떠나 직접 참여해 재능기부를 함으로써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성학 사무국장은 "참여 학생들은 전통 문화를 익히며 효도와 화합, 좋은 식습관을 배우 학교와 사회생활에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며 "또한 자기성찰, 인성함양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고 더불어 나누어 살 수 있는 자생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고 덧붙

었다. 포교사단에서 1998년도에 설립한 무소유실천운동본부는 행정자치부에 비영리단체로 등록,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정신에 입각해 시민의식을 개혁하고, 무소유 정신을 사회에 구현해 바르고 깨끗한 사회 건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1998년 소년소녀가장돕기 후원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래 15년간 △장기기증 및 헌혈 등 생명나눔사업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운동 △군대·교도소 위문·새터민가정돕기 △성보문화재 보호 및 지킴이 사업 △자원과 에너지 절약사업 △자원봉사자 육성 및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02)927-0588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 복지·나눔 소식

### 철야정진으로 모은 성금 환아에 전달돼

조계종 산하복지관, 3000배 정진 모금액 지원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조석영)은 8월 7일 복지관 선정회의를 거쳐 선정된 관내 사례관리 대상자 2명에게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 4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주최한 3000배 철야정진을 통해 마련된 후원금이 지역 환아들에게 전달됐다.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관장 조희)은 8월 9일 난치병 어린이 의료비 전담식을 가졌다. 이번 기금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주최한 3000배 철야정진을 통해 마련된 금액이다. 복지관은 '뇌 해마 경색증'과 '선천성 다발성 관절관절증' 등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2명에게 총 200만원을 전달했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조석영)

은 8월 7일 복지관 선정회의를 거쳐 선정된 관내 사례관리 대상자 2명에게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원했다. 조석영 관장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꾸준한 후원에 감사를 드리며, 의료비를 전달받은 두 학생이 지금처럼 밝은 모습으로 건강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흥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원경)은 8월 19일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2명의 어린이에게 각 200만원을 후원했다. 이나은 기자

### 동화작가 꿈꾸는 청소년 모여라!

목동청소년수련관, 8월 31일부터 동화창작 프로그램

청소년들이 직접 나만의 동화책을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서울시립 목동청소년수련관(관장 지완)은 서울시 특성화 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동화창작 디자인 '동화아트 상상아트'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그림동화 및 동화작가 진로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직접 상상해 동화를 재구성하고 도안스케치를 그

려 나만의 동화책을 만드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중·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될 '동화아트 상상아트'는 8월 31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총 12회에 걸쳐 실시된다. 모집인원은 10명이고 참가비는 8만원이며 신청방법은 수련관 방문접수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02)2642-1318 이나은 기자

### 속초종합복지관 여유음식 나눔 협약

속초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성연)은 8월 12일 한국전력공사 속초연수원(원장 김제동)과 '여유음식 기부를 통한 일석삼조 나눔'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전력공사 속초연수원이 여유음식 절감을 위한 나눔 사업을 속초종합사회복지관에 제안하며 이뤄지게 됐다. 협약에 따라 속초연수원은 복지관과 연계해 여유음식을 지역 내 독거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결식위기에 놓인 소외계층가정에 매일 전달할 수 있게 됐다. 김제동 한전 속초연수원장은 "여유음식 기부를 통해 사회적 나눔 문화 실천에 함께 할 수 있게돼 기쁘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들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 "가문의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배우 정준호, 서울노인영화제 홍보대사 위촉

배우 정준호가 서울노인영화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는 8월 22일 서울노인복지센터 3층 강당에서 '제6회 서울노인영화제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었다.

희유 스님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정준호는 핸드프린팅 기념식과 실버DJ 어르신과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준호는 "어릴 적 조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들에게서 예절과 지혜를 배웠다. 현재 많은 사람들과 원만한 교류관계를 맺고 잘 지낼 수 있던 것도 조부모님 덕분"이라며 "노인영화제 홍보대사로 위촉된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점점 고령화 시대로 가는 만큼 어르신들의 지혜와 목소리를 필름에 담아 그들의 인생이 빛날 수 있도록 젊은 배우들이 많이 참

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희유 스님은 "올해로 6회를 맞는 서울노인영화제는 개막초청작으로 노인을 주제로 한 해외 작품도 상영하는 등 명실 공히 노인영화제로서의 한 단계 더욱 도약하는 시점"이라며, "앞으로 서울노인영화제가 어르신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교감할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노인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 있는 어르신들을 양성하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준호는 서울노인영화제가 노년기에 갖는 다양한 이야기를 노인 스스로 만들고 다른 세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노인문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서울노인영화제



서울노인복지센터 3층 강당에서 열린 '제6회 서울노인영화제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배우 정준호(오른쪽)와 희유 스님이 기념촬영을 가졌다.

가 향후 영화감독들에게 노인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작품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노인문화에 대한 다양한 시선과 이해를 돕는 데엔 인자 역할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6회 서울노인영화제는 '노인,노임(knowing)'을 주제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충무로 대극장에서 열린다. 영화 상영은 물론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문화 축제로서 '관객과 함께하는 감독과의 대화', '열혈대담-감독, 감독을 만나다'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02)6911-9554

이나은 기자

세계 침구 한의대학, 중국1위 중의대학

## 중국국립한외과대학 특차 모집

- 모집요강**

학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외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1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1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신문, 영어학 등
-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외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관리
-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3년 8월 31일
- 문의처**
  -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 팩스 : (02) 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http://www.njutcm.co.kr)
  -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경중의학대학**  
(南京中醫大學) 02)511-1080,2026

## 65세이상 승려연금 지급 중단 불교조계종

불교조계종의 종풍은 계율청정한 율종의 가풍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부처님의 진리를 포교하여 세계인들의 마음에 안심을 구현하고 세계질서의 평화로운 세계와 불국정토의 세계를 세우는 일에 주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정법 구현의 사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본 종단에서는 승려전문 노인 병원, 종단사업(건설, 출판, 홍삼, 기타사업 등)과 복지타운을 건립해 다양한 승려노후 복지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 총무원장 헤인 함장

**입종 및 사찰 등록 안내**

- ◆ 제출서류 ◆
  -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 승적원부 (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 승적증빙서류 (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 사찰 전경, 내 외부 사진 각 1부
  - 반 명함 사진 5매 (대가사를 수한 사진)
- ◆ 참고사항 ◆
  -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 총무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우 135-887  
● 총무국 : (02)511-2026~7 팩스 : (02)511-2028  
● 종단사업부 : 02)549-1918  
● 인터넷주소 : 불교조계종.kr(www.shbuddhism.or.kr)  
● 불교조계종신문 : www.jogaejong.or.kr  
● 불교조계종학림 : www.njutcm.co.kr